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본 나누는 삶을 위해
요구되는 자세

김 성 한 (Kim, Sung-han)*

(E-mail : kishan1209@daum.net)

논문접수일 : 2012년 10월 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고려대학교
현직: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본 나누는 삶을 위해
요구되는 자세*

<국문요약>

공리주의는 대체로 쾌락주의, 결과주의, 보편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특징으로 하는 윤리 이론으로, 칸트주의와 더불어 윤리 이론을 대표한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할 나누는 삶에 관한 지침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공리주의자들은 결과에 비해 동기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동기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고 더 많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공리주의자들이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동기가 좋아야 계속해서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리주의자들은 무위와 유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 또한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초래되는 총체적인 고통과 행복을 염두에 둘 경우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자뿐만 아니라 봉사 대상의 입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봉사자 쪽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봉사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 구조적, 제도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에 개인의 힘은 너무 나약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봉사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여러 봉사활동을 해 나간다면 일상 속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결과, 공리주의, 동기, 봉사활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I.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는 공교육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 나아가 국가에서도 나누는 삶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나칠 정도로 경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제도화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교육 기관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봉사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봉사 활동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활동할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우며, 봉사활동 자체가 형식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처럼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익히고, 실제로 약자들에게 작으나마 힘이 되어 줌으로써 공익을 도모하려는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모처럼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자원봉사 전문가 워크숍 보고서의 토의 결과에서 지적된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봉사활동은 불규칙적이고 지속성이 없으며, 봉사자들이 봉사기간을 이수하고 나면 활동을 중단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점수따기식의 활동이기 때문에 봉사의식이 희박하며, 봉사 활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이나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김영호·오정옥 외 2003, 197-8).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그런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방금 지적한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대체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봉사활동은 더욱 형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중 한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봉사활동을 하기 전 또는 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유와 실천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만약 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천 자체가 맹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확고한 사유를 토대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야 비로소 그러한 실천이 많은 실익을 산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필자는 봉사활동을 위한 적절한 사유의 한 방법으로 공리주의적 접근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굳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리주의가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칸트주의와 더불어 다른 윤리 이론들보다 설득력을 인정받는 이론이며(C. E. 해리스 1994, 252),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도덕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을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이처럼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쾌락과 고통의 합계를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하라는 공리주의적 지침은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를 따져 볼 때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1) 이처럼 상대적으로 나은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윤리학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도 통용되는 이론 선택 방식이다(G. Harman 1964, 89).

II.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관점

벤담(J. Bentham)에서 출발해서 밀(J. S. Mill)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공리주의는 다양하게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각각의 입장은 어느 정도 그 특징을 달리한다(W. S. 사하키안 1986, 227이하). 그럼에도 공리주의는 대체로 쾌락주의, 결과주의, 보편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공리주의는 쾌락을 선, 고통을 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쾌락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자면 공리주의는 행복을 도모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입장을 취하는 윤리 이론이다. 다음으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과주의란 동기와 결과 중에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얼마만큼 행복을 많이 산출하고 고통을 줄이느냐가 어떤 동기에서 행동을 했느냐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리주의는 어떤 존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이건 이를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누가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며, 내가 얼마만큼 행복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이는 공리주의의 이상(理想)으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의 행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가 갖는 쾌락주의적 특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다. 만약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도모하고, 더 많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²⁾ 이처럼 공리주의자가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최대한 많은 사람

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있어서는 안 될 고통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피터 싱어 1996, 10)이다. 이하에서는 공평무사성을 제외한 공리주의의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³⁾

III. 공리주의의 특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봉사 지침

1.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도출되는 지침

1)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돕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설령 돕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불행을 외면하려 한다. 나아가 우리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동기의 순수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시될 수 있다.

- 2)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각각의 사람들의 선호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수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다수결의 원리와는 다르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통해 “행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옳다고 생각”(최훈 2007, 64)하는 것이다.
- 3) 공리주의의 특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질 경우 어떤 목록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가 애매해질 수 있다. 여기서의 구분은 대략적인 것으로, 공리주의의 논리적 귀결로 어떤 행동 지침이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1) 굳이 동기가 행동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있어야만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동기의 전환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동기란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설령 별다른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행동을 통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동기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며, 설령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동기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서 꾸준히 행동을 하다 보면 동기 또한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달라질 수가 있다.

(2) 동기주의 윤리 이론만이 옳고 그름의 궁극적인 기준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을 동기를 통해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잘못된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기의 올바름을 강조하는 칸트주의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굳이 동기의 훌륭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물론 거의 모든 윤리 이론이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세상의 고통이 제거되었거나 행복이 초래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결과적으로 행복이 더 많이 초래된다면 나눔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동기가 훌륭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동기가 훌륭해지길 기다리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기가 훌륭해지길 기다려 실천하고자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합리적·사회적인 특징을 지니기도 했지만 인간이 충동적·이기적인 특징도 아울러 갖추었으며,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S. Freud)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하나다.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충동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 듯한 대의명분을 따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한층 깊은 곳의 동물적인 충동, 특히 성적 충동의 영향에 따르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인간관, 다시 말해 인간이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각 있는 존재라는 오랜 신념은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이해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충동의 영향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본능적인 충동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맥린(P. McLean)의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⁴⁾ 맥린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뇌줄기, 변연계, 신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뇌줄기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부위로, 뇌 진화에서 가장 오래된 영역이다. 이는 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부위로, 뇌줄기에 비해 늦게 진화한 부위다. 이는 뇌줄기를 덮고 있으며, 주로 회로애락의 감정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피질은 진화의 역사상 가장 늦게 만들어진 부위로, 뇌줄기와 변연계를 덮고 있으며, 주로 사유를 담당한다. 이러한 부위는 인간 뇌의 90%를 차지하며, 인간은 뇌에 이러한 영역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이성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뇌가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뇌가 전적으로 신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뇌줄기와 변연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면, 뇌줄기와 변연계의 영향을 받는 이기적 충동이나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동기에 부지불식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백연 양보하여 설령 신피질의 영향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유 능력이 철저하

4) 맥린의 이론에 대해서는 <http://www.kheper.net/topics/intelligence/MacLean.htm> 2012/08/17을 참고했다.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만을 요구하리라는 법은 없다.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보았을 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 구조를 따져 볼 때 우리가 욕구나 충동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기가 완전히 순수해지길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른다. 일찍이 칸트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인간이 욕구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지가 도덕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신성성을 의미한다. 즉 감성계의 어떠한 이성존재자도, 그 생존의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소유할 수 없는 완전성"(I. 칸트 1992, 134)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최선을 다해 동기의 순수성을 지향하면서 실천을 하는 것일 수 있다.

2) 그럼에도 훌륭한 동기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 필자는 마음가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자들이 동기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복을 도모하고 고통을 제거한다는 입장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공리주의자들도 훌륭한 동기에서 실천을 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훌륭한 동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선행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선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행복을 도모하고 고통을 제거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만족, 평판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행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다. 하지만 훌륭하지 못한 동기에서 하는 행동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거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경우에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평판 때문에 선행을 했다면 그런 평판과 무관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동기를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다면 동기가 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설령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딜 것이며, 자칫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다소 힘들고 의도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내가 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는 것이며, 과연 내 생각이 바람직한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자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이를 자신의 동기와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동기를 순수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옮겨놓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동기가.

필자가 염두에 두는 훌륭한 동기란 적어도 자신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배제한다.⁵⁾ 그 이유는 그러한 동기가 “자기 이혜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피 주거나 일함”(신기철·신용철 1990, 1508)이라는 봉사의 단어적 의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기적 동기 자체가 적절한 윤리적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C. E. 해리스 1994, 95). 많은 경우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설령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윤리적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따르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5) 폴 테일러(Paul Taylor)는 자신의 책에서 이기주의 윤리설이 갖는 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P. 테일러 1985, 72이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공리주의적 입장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를 도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2. 쾌락주의적 측면⁶⁾에서 도출되는 지침

1)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통을 직접 주는 것은 나쁘지만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양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행위(doing)와 ‘방관(letting happen)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행위와 방관이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⁷⁾ 이 경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돕지 않는 것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령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로 인해 고통이 계속 야기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야기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 잘못을 범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실천윤리학』에서의 싱어(P. Singer)의 주장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P. 싱어 1997, 265이하).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명품을 사는 데 사용하는 경우’와 ‘상대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생각을

6) 여기서의 쾌락주의적 측면이란 행복을 산출하고 불행을 줄이는 공리주의의 특징을 말한다.

7) 예컨대 다우어(Nigel Dower)는 이러한 입장에서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N. 다우어 2005, 30-31).

가지고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경우’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싱어에 따르면 두 경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논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동기가 다르다.

자의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친다. 반면 외제 승용차를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다. 외제차를 산다는 것이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의도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돈을 기부하는 대신에 사치품을 사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은 이기심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낼 뿐이며, 설령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를 실제적인 악의나 그와 비슷한 동기와 비교할 수는 없다.

(2)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해악을 가했을 경우 우리는 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고,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비싼 옷을 사 입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곤경은 나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다.

곤경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내가 있건 없건 그에 상관없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살인을 했다면, 나는 희생자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 책임이 있다.

싱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고통을 줌’을 ‘고통 받도록 방치함’ 보다 ‘더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설명할 따름이다(ibid., 267). 다시 말해 고통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싱어는 위에서의 논거에 대해 각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한다(ibid., 267이하).

(1-1) 동기의 차이에 대한 반론

만약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비난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전혀 동기와 상관없이 실수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었다고 했을 때 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그는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며,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2-1) 해를 입은 사람의 확인가능성에 대한 반론

해를 입은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내가 통조림 판매업자인데 그 속에 발암물질이 섞여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계속 판매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구체적으로 누가 통조림을 먹고 암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3-1) 나로 인해 초래된 고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 또한 근본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모른 척한다면 이는 도덕적인 잘못인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희생이 감수할 정도라면 아이를 못 본 척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ibid., 272쪽).

이와 같은 싱어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공리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입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싱어의 입장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공리주의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면 고통을 직접 주는 것과 고통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돕는 것은 칭찬을 들을 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봉사 방법과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만약 이러한 생각에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누고자 할 때 이것이 자칫 제대로 된 나눔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봉사를 할 대상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인격적 성장을 포함해 봉사자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봉사 수요자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긍정적인 과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등이다. 우리는 적절한 숙고를 통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1)와 (2)는 봉사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 (2)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에 간과하기 쉬운 측면이다.⁸⁾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분은 흔히 봉사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막상 봉사 수요자가 즐겁기는커녕 고통을 느끼는 경우

8) 이의 극단적인 사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영양공급을 하여 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에 따라 원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J. 지글러 2007, 58-9).

도 흔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봉사활동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봉사활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내가 남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까지 준다고 하면 이는 사실상 봉사활동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봉사 수요자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기주의 윤리에서는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기주의 윤리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의 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동기주의 윤리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내가 훌륭한 동기에서 행동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도덕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주의 윤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대상은 반드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 행복을 산출할 수도,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봉사자는 자신의 동기 못지않게 봉사 수요자가 느낄 행복과 불행에 고려해서 봉사 수요자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봉사자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도움 수요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희성 2011, 340-342; 김성한 2009, 287).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부다. 기부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웃돕기다. 기부는 어떤 동기로 해도 무방하며,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활동도 아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하기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봉사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기부를 할 때마다 매번 마음을 다지기 보다는 자동 이체 등을 통해 습관적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의 마음가짐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기부는 적절히 이루어

어질 경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봉사자가 아닌 봉사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봉사보다도 실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기부 또한 마땅히 일종의 봉사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부를 하면서 적절한 동기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부는 직접 활동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봉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부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실생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히 동기를 제공받을 경우 봉사활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봉사 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그다지 담겨 있지 않은 봉사활동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수 있다.

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⁹⁾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지금까지 우리는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입장, 그리고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들을 살펴보

9)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의 불행을 제거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을 +로, 불행은 -로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만약 A라는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각각 20씩 야기했다고 한다면 A는 결국 0으로 계산이 된다. 다음으로 B라는 선택이 행복을 10, 불행은 100을 야기했다면 B는 -90으로 계산이 될 것이고, C라는 선택이 행복을 0, 불행은 20야기했다면 -20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공리주의자는 A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것이다. 문제는 행복과 불행을 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어떤 선택이 더 많은 고통을 제거하거나 더 많은 행복을 야기하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공리주의자들은 노예의 고통보다 다른 구성원들의 행복이 훨씬 더 커질 경우 공리주의자들이 노예 제도마저도 정당화할 것이라는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노예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합계를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행복과 불행의 양을 계산해 보아서 실제로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모된다면 모를까 그 반대라고 한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려 할 것이다.

았다. 이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려 한다고 할 경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개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¹⁰⁾

1)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개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비교적 직접적인 것들이 있고, 보다 근원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원인들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 현상만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는 잘못된데, 만약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이웃의 문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인을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고 처방을 내릴 경우, 또는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처방에 그칠 경우 그러한 처방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득보다는 실이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다. 인간이 사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감안할 때, 개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나 행동 양식을 정

10) 사회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결정은 공리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이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행동을 선택할 때에는 공리 계산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아닌 듯 보인다.

해 주는 사회 구조나 제도들이 갖추고 있는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른 원인들을 해명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을 따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여러 직접적인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문제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해결 없는 구호적인 사회 봉사는 “부정의한 체제가 빚어내는 문제들을 임시변통의 치료를 통해 약화시킴으로써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제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체제 유지의 시너로 전략할 수 있다(박정하 2001, 112).” 이는 고통을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쉽지 않으며,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얽히고 설킨 있어서 한 측면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힘에 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처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힘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힘이 꾸준히 결집되어 임계점을 넘어서면 결국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한 과정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령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은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관

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축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사회 구조와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의 개선은 말 그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11)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이루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문제들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도가 자칫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모든 문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개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현실 속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한 가지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나 남을 도울 때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이야기다. 실제로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선행은 남모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와 다소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행복이 산출되고 고통이 제거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만의 선행이 아닌 주변 사람

11) 싱어(P. Singer)는 “도우면서 나팔을 불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되는 것이며, 따라서 더 좋은 것이다(P. 싱어 2009, 94).”라고 주장하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단순히 나팔을 불기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팔’이 아닌 ‘동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싱어와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

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선행이 갖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늘림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남 모르게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우기 위해 1000원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10명과 함께 1000원씩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이 더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동기라는 측면을 따져 보았을 때는 전자가 더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가를 따져 보면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의 선행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외의 다른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의무일 수가 있으며,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난 후에야 성불(成佛)을 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면 불자들은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마땅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인해 인격체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칸트주의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행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이념은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남몰래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봉사활동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3~5명 단위로 소모임을 조직하게 하여 각 소모임 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면 혼자서의 활동에 비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쪽에 가까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임을 만든 운영자가 소모임 활동에 일일이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운영자는 여러 모임 중 1~2개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소모임들의 활동을 알선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하면 될 것이고, 각 소모임 회원들은 사이트에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올려서 함께 나누면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각각의 소모임들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조직을 만들어 운영을 할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활동을 촉발한 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일상 속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봉사 조직을 만들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아무래도 각종 단체, 시설, 기관의 운영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개인들에 비해 훨씬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영향력은 대개의 개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들은 그 집단 내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일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자신의 역량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개인들 또한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모임을 크고 작은 방식으로 만들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기부를 하거나 소규모로 방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분명 혼자만의 보이지 않은 선행보다 적어도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격이 될 것이다. 12)

12)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활동을 하는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리주의의 관점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았다. 공리주의는 행복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동기보다는 실천에 초점을 맞춰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문제들을 신중히 생각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를 일상 속에서 따르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 함께 나눔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무작정 하는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이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할 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 또한 직접적인 봉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혼자서 몰래 하는 봉사에 비해 훨씬 사회적인 효익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매우 훌륭한 활동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성한, 2009, “사회봉사 과목을 이용한 윤리 교육 방법으로서의
농활”, 『철학연구』, 제38권, pp. 277-306.
- 박정하, 2001, “사회봉사의 철학적 기초”, 『시대와 철학』 제12권
1호, pp. 107-144.
- 나이절 다우어(Nigel Dower) 2005, “세계의 빈곤”, 피터 싱어
(Peter Singer) 김성한·김성호 옮김, 『응용윤리』, 서울: 철
학과 현실사.
- 김영호·오정옥·김상조·문혜숙·이은경, 2003,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신기철·신용철, 1990,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 현외성, 2011, 『자원봉사전 강해』, 서울: 학지사.
- 윌리엄 사하키안(William Sahakian)저, 송휘철·황경식 옮김, 1986,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저, 최재희 옮김, 1992, 『실천이성
비판』, 서울: 박영사.
- 장 지글러(Jean Ziegler)저, 유영미 옮김,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찰스 해리스(Charles E. Harris)저, 김학택·박우현 옮김, 1994,
『도덕 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서울: 서광사.
- 폴 테일러(Paul Taylor)저, 김영진 옮김, 1985, 『윤리학의 기본원
리』, 서울: 서광사.
- 피터 싱어(Peter Singer)저, 함규진 옮김, 2009,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서울: 산책자.
- _____, 황경식·김성동 옮김, 1997, 『실천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_____, 정연교 옮김, 1996,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서울:
세종서적 .

Harman, Gilbert 1965, "Inter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Philosophical Review, 74.

The Requiring Attitude of Volunteers from the Standpoint of Utilitarianism

Kim, Sung-h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Generally, utilitarianism is an ethical theory, characterized by hedonism, consequentialism and universalism, by pursuing the greatest happiness to the greatest extent. It represents the ethical theory associated with Kant's ethical theory. If we accept this theory, it might provide some guidance to volunteers which they have to accept.

First, utilitarians believe that the result is more important than the motive. Therefore, even if the motive is not as good, utilitarians will ask themselves the question as to which can produce more happiness and remove pain. Here, we have to be careful as not to think that utilitarians only consider the result to be important. They also think that motive is as much important.

However, when the result and the motive are in conflict, they prefer the result over the motive. Utilitarians think highly of the motive because a good motive may produce continuous happiness. Second, as utilitarians do not distinguish between doing and not doing, they believe that ignoring a neighbor's pain can be evil. They also think that we must positively consider the interest of consumer services as well as

volunteers.

Finally, if we accept utilitarianism, we must seriously consider the greatest happiness to the greatest extent.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hanging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our society. However, the power of the individual is too weak to change these aspects. The alternative of this might be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For example, if an individual organizes a volunteer society and works with other people, this might be an effort to pursue greatest happiness to the greatest extent in the individual's daily life.

Keywords : consequence, motiv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utilitarianism, volunteer activities